

# 밀원심기 운동을 벌이자

우리나라 양봉업계는 243% 관세를 가지고 있는 벌꿀이 DDA와 FTA협상 등으로 축산물 중 최고 높은 관세가 두 자리수로 긴박하게 떨어질 상황에 처해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경쟁력을 높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밀원수를 스스로 심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대다수 양봉인들은 정부에서 밀원수를 심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소나 돼지, 닭 등 다른 가축한테 사료작물을 심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사료작물 한 평 심지 않고 남에 땅에 방목을 하면서 소를 다량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죽어 가는데 비만 내리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지하수를 파서 천수답을 항시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리안전답으로 바꾸는 것 처럼 밀원심기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부터라도 전 양봉인들이 밀원수 심기에 적극 참여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60~70년대 산이 험벗어 있을 때 산에 밀원심기 운동을 펼쳤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고, 그 후 WTO 협상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심어 왔다면 지금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본인은 2년 전부터 一千五拾萬밀원심기 운동을 펼치면서 전 국토를 밀원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한 사람의 양봉인이 1년에 천 그루씩 심되 다섯 종류 이상을 10년간 만 그루 심자는 뜻이다.

양봉인들이 조금만 노력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이다.

땅이 없는데 어디다 심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목을 가지고 다녀 보면 심을 곳은 무궁무진하다. 도로변의 가로수, 공원수, 산불난곳, 하천변 공한지, 절개지, 공원, 공장, 학교, 아파트 가든, 여관 등의 녹지공간, 농촌주택 주변, 봉장주위의 산 유희지, 산복도로 주변 고압선 설치한 곳 해변가, 국유지에 초지 조성했다 지금은 노는 땅, 마을안길 등 수없이 많다.

내가 삼질하나 안하고도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꿀이나 한병 가지고 마을 이장 찾아가 음나무, 헛개나무, 모감주나무 등 농가주변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나누어 주면 이장도 좋아하면서 한편 생색내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주리라 생각된다. 내 땅 한평 없어도 삼질하나 안하고 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심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밀원수를 심어봤자 꽃피면 남들이 벌 가지고 와서 꿀을 따갈것 부터 걱정하면서 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지면 법안을 만들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전 양봉인이 다같이 심으면 이러한 걱정 또한 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양봉업계는 WTO협상 이후 방역비에 약 170억원 기자재 지원사업에 수백억원의 돈을 지원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정작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우선으로 높일 수 있는 밀원식재 사업에는 단돈 1억원도 지원받지 않은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앞으로 관세가 없어져 경쟁력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업계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곧 닥쳐 오는데도 전국의 대다수 양봉인들은 기자재 지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들이 저축하여 놓은 돈을 긁어 모으고 외국에 사정하여 차관을 들여와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길만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오늘의 잘사는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았다.

우리 양봉업계도 각 지역에서 박대통령과 같은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양봉업계가 경쟁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별통을 살 사람도 없고 지원받아 사놓았던 기자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지원사업의 혜택을 기자재와 밀원수 지원을 비교했을 때 10년 후에는 밀원수 지원받아 심은 것이 수십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밀원심는 적기는 얼음이 풀린 3월 달이 우리나라 나무심는 적기가 되겠다. 봄별관리에 바쁘겠지만 하루에 200주는 충분히 심을 수 있으므로 올 봄부터 밀원수 심는 운동을 펼쳐 나가자.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밀원수 보급을 위한 예산이 6억 5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50% 자부담을 하여야 하다보니 신청자가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자재를 자부담하여 사는 것은 서로 더 가져 갈려고 하면서 밀원수는 쳐다 보지도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에 밀원수 지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 예산도 2004년 아까시 흉작으로 인하여 정해운회장과 제가 농림부 찾아다니며 사정하여 세운 예산이다.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 잘 소진되어야 내년에도 예산배정을 해주지 소진을 못하면 밀원수 지원예산이 줄어들거나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올해 한국양봉농협에서도 2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도 1억 4,500만원을 밀원수 묘목 지원 예산으로 세워 놓았다. 심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묘목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나무 심는 방법은 칠펍굴이 없는 곳을 택하여 심되 구멍이를 판 다음 묘목을 구멍이에 넣고 파낸 흙을 곱게 부수어 뿌리를 잘 퍼주면서 흙을 넣고 줄기를 잡고 흔들어서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게 한 다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밟아주면 되겠다 이때, 묘목의 심는 깊이는 원래 묘목이 땅에 묻혀 있던 부위만큼만 묻히도록 하고 땅이 약간 가라앉을 것을 대비하여 흙 한 삽만 위에 더 얹어주면 되겠다. 줄기는 나무의 1/3정도만 남기고 윗부분은 자르고 심으면 활착률이 높아지며 쉬나무는 심고 나서 무조건 지상부를 전부 자르고 뿌리만 남겨 주어 활착률이 높아지며 쉬나무는 자르지 않고 심어도 잘 살게 된다.

묘목을 심는 간격은 쉬나무, 음나무, 헛개나무 등 크게 자라는 나무는 6m정도에 한 그루씩 심는 것이 좋으며 그 밖의 밀원수도 5~6m가 적당하다. 모감주 나무와 때죽나무는 성장이 더디므로 4m 정도에 한그루씩 심으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심을수 있는 대표적 수종으로는 아까시아, 쉬나무, 음나무, 헛개나무, 때죽나무, 벚나무 등을 들 수 있겠고 초본류는 익모초와 골든로드 물봉숭아가 자생력과 밀원가치로 보아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된다.

묘목이 옆가지가 있으면 잘라주고 전년도 이전에 심은 나무는 새순이 나오기 전에 전지를 하여 3m정도까지는 곱게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땅이 메말라 있을 경우에는 물을 주면 좋은데 비오기 전이나 후에 심으면 활착률을 높일 수가 있다. 전업양봉인일수록 앞으로 밀원수를 열심히 심는 자는 살아 남을 것이고 심지 않는 자는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 이 업계를 떠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차라리 심지 않을 바에는 심을려는 자에게 방해가 되는 말을 삼가야 하겠다.

밀원수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사양 꿀을 뜰 수밖에 없는 논리를 피는 사람이 밀원수 한그루 심지 않는다면 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도둑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양봉업계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떠나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